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홍길자	면담자	이혜숙		
면담장소	정성식당	면담지원	정지선		
면담 일시	2021년 10월 15일	회차	1	시간	-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0880				
구술 개요	40년째 식당 운영, 아침에 장보는 재료들로 반찬을 만듦, 단골손님들이 꾸준히 오심, 막내 아들 말에 따라 정성식당으로 지음, 모든 재료는 국산 사용				
주요 색인어	익산, 미추홀구, 백반, 반찬, 생선, 쌀, 밥, 메뉴, 손맛, 전라도, 코로나, 단골, 정성식당, 국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백반집의 시작				-	▷기록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기록검수확인서 ▷녹취문
- 고향은 전라북도 익산. 시집을 와서 50년 동안 미추홀구에서 사셨음. 가게를 시작한 지는 40년째. - 백반 집으로 선택한 이유는 집에 있으면 좋아하고, 생활하기 위해서임.					
2. 재료 및 반찬				-	
- 반찬을 아침에 시장봐서 매일매일 바꿔주고, 꼭 생선이 들어감. - 쌀은 먹어보니 괜찮은 쌀로 사용. -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반찬을 할지 생각하고 감. - 집에서 먹는 반찬과 똑같이 함. 그래서 착오가 없음.					
3. 사장님의 손맛				-	
- 엄마의 고향이 전라도고, 음식을 잘하셔서 그 손맛을 배웠음.					
4. 코로나				-	
-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많이 없어 매출에 차이가 나지만, 오시던 분들이 맨날 오셔서 적자는 안 봄.					
5. 손님				-	
- 몇 십년지기 단골손님들이 꾸준히 오심. - 주안7동에 맛있는 백반집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음.					
6. 정성식당				-	
- 막내 아들이 3학년 때 정성스럽게 헤드리면 손님이 많을 것 같다는 말에 ‘정성식당’ 으로 지음. - 고기 종류만 호주산을 쓰고 전부 국산으로 손수 만듦.					